브라질서 또 집단 탈옥 터널 뚫고 달아나

브라질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집단탈옥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7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북부 호라이마 주 지-파라나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 5일 새벽 수감자 27명이 탈옥했다. 경찰은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 한 감방으로 연결된 터널을 이용해 빠져나간 뒤 미리 대기 중이던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탈옥한 수감자 가운데는 대형 범죄조직의 우두머리급이 다수 포함됐으며, 11명은 추격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으나 나머지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경찰은 수감자들이 상당 기간 터널을 만들었고 트럭을 대기 시켜 달아난 점으로 보아 탈옥 과정에 교도관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브라질 중서부 마투그로수 두 술 주와 경계를 접한 파라과이 페드로 후안 카바예로 교도소에서 수감자 75명이 탈옥했다. 이어 하루 뒤에는 브라질 북부 아크리 주 히우 브랑쿠 교도소에서 수감자 27명이 3m 높이의 담을 넘어 탈옥했다.

두 곳에서 탈옥한 수감자들은 브라질 최대 범죄조직인 PCC 조직원이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범죄조직의 조직원들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체포됐다.

특히 파라과이 교도소에서 일어난 집단탈옥에는 비리가 개입된 사실이 양국 경찰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PCC는 조직원들을 탈옥시키기 위해 교도관 매수와 도주 비용 등으로 최소한 600만 헤알(약 144만 달러)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PCC는 1990년대 초반 상파울루 주에서 등장했으며, 현재는 전체 조직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브라질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인접국에도 하부조직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마약 밀거래와 밀수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지식인들 "시진핑 물러나라"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지식인들의 비판까지 등장하는 등 민심이 동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언론통제 강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6일 '한겨레' 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는 이날 쉬장룬 칭화대 법학 교수가 최근 여러 외국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쉬 교수는 "모든 공개토론 기회가 억제돼 사회에 경보를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너졌다." 며 "정부는 관료들의 능력보다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의욕이 없는 관료들로 가득하다." 고 지적했다.

특히 쉬 교수는 "중국의 30년 이상 걸려 수립된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며 '시진핑 체제' 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가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76년 마오쩌둥 전 주석 사망 뒤 수립된 집단지도체제가 시 주석 집권 이후 약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쉬 교수는 2018년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했다가 출국금지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도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무역전쟁, 홍콩 시위, 신종 코로나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 못 하는 시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시 주석의 정치이데올로기는 혼란스럽고, 그의 통치모델은 구식이며, 사회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중국을 망쳤다" 고 비판했다. 2013년 중국에서 공공질서 교란죄로 체포돼 4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출소한 그는 지난해 말부터 다시 도피 중이다.

민심 악화에 대응해 시 주석은 5일 오후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언론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위 68주년 현존 최장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사진)이 6일 재위 68주년을 맞았다.

1926년 4월 21일생인 여왕은 조지 6세 선왕이 폐암으로 서거하며 26세이던 1952년 2월 6일 재위에 올라 현존 최고령, 최장수 군주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96세가 되는 해인 2022년에는 군주의 재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게 되는데, 건강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왕의 즉위 68주년을 맞아 이날 런던 타워와 그린 파크 두곳에서 여왕 근위대가 쏘는 예포가 울리고 그의 즉위식이 거행된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종이 타종됐다.

이날 여왕은 별다른 활동없이 그의 선친 선왕이 숨진 곳이자 휴양처인 샌드링햄에서 조촐히 기념일을 보냈다.

한편 영국 여왕은 영국 외에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등 영국 연방 16개국의 왕이기도 하다. 16개국의 총인구는 보호령까지 포함해서 1억 2,900만 명이 넘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셈이지만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영국 여왕은 지구상에서 2개국 이상의 독립국을 다스리는 유일한 군주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47년 필립 마운트배튼과 결혼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본래 그리스와 덴마크의 왕자로 태어난 필립은 영국에 귀화해 에든버러 공작 작위를 받았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